

제주도의 지역특성과 문학-예술적 표현

오홍석*

<차례>

- I. 서론
- II. 전근대의 문학적 표현
- III. 화산활동과 고유한 자연경관
- IV. 변방의 성격과 잊갈린 회비
- V. 영화촬영장소의 지리적 성격
- VI. 문학-예술적 표현과 장소의 특성
- VII. 결론

I. 서론

제주도는 전체가 화산지형으로 이루어지고, 역사시대의 분출기폭까지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은 '유산용해중(有山湧海中)이니, 산개사공(山開四孔)이요, 적수용출(赤水湧出)이라는 글귀에서 입증되고 있다.'¹⁾ 화산활동에 관한 시기-장소-상황을 알리는 내용이다. 시기는 고려 목종 때이고 장소는 서산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줄거리날 닮아내고 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바다 한 가운데서 새로운 섬이 솟아나고, 화구를 통해서 용융상태의 붉은 적수(赤水)가 분출했다'는 내용이다.

* KISTI, 환경전문연구위원

1) 金斗奉, 『濟州島實記:耽羅志補選』, 국립중앙박물관(1935), p.24.

이것은 화산활동에 관한 분명한 기록이라 하더라도, 제주도 전체를 망라하여 화산도(火山島)로 규정하고, 학문적으로 거론한 것은 불행하게도, 일본인 히시에 의해서였다. 그는 제주도를 실지답사하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하여, 제주도가 '화산도란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한라산을 주봉(主峰)으로 삼고, 크고 작은 화산들이 활동을 시작하여, 신생대 초기부터 조면암을 분출했다. 제4기에 조면암이 섞인 안산암과 함께, 현무암을 분출한 것을 계기로 화산활동의 절정기를 이루었다'고 했다.²⁾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서, 제주도가 한국에서 회소가치가 있는 화산 지형이 분포된 지역으로 확고한 위상을 굳혀왔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와 이질(異質)적인 자연으로 다가왔기에, 사람들은 회소가치와 함께 신비한 경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신비한 것에 다가갈려는 인간욕구가 제주도로 하여금, 관광지로 급부상하게 만든 배경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각은 전근대부터 문사(文士)들에 의해서 느껴왔고, 나름의 표현을 해왔음으로 갑작스럽게 전개된 것은 결코 아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은 사람의 눈에 투영되고, 감각적 표현을 통해서 문학과 예술작품으로 승화의 길을 걸으며,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는 지역성격과 연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문학과 예술은 허구(虛構)에 바탕을 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지역성격이 투영된 실질공간에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이상, 토지공간(earth space)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지리학과 별개일 수 없다. 미술의 경우 가시적(visible) 경관을 화폭에 담으면 되지만 '시와 소설'의 경우 특성화된 인간경험에 흥미를 갖게 되고, 경험의 장소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서, 독자에게 강렬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³⁾

2) 中村新太郎, 「濟州島火山島雜記」, 地球 4-4(1925), p.15.

3) William E. Mallory, *Geography and Literature*, Syracuse University Press

문제는 활동무대가 공간형태로 드러나는 '지리적 장소(geographical place)'이며, 그것은 인문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연요소까지 복합(複合)되고 있으므로, 작가 자신이 이에 대한 성상을 파악하지 않고, 독자에게 생생한 감동을 줄 수 없는데 있다. 그래서 문학지리학의 분야가 탄생되기도 했지만, 필자의 전공과는 무관한 상태에 있었다. 다만 '환경과 철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직간접의 관계에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게 되었다. '허구와 실질'은 문학(예술포함)과 지리의 두 영역을 포함하는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쏠릴 경우 본질과제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를 안게 된다.

특히, 문학과 예술은 감상적이고 섬세한 표현에서 익숙하지만, 인간행동을 표출한 무대의 실질공간을 해명하는데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반해서 지리학은 실질공간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표현기법에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불이(不二) 철학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고, 그것은 서로의 입장에서 과감하게 떠나는 이차이자(離此離者)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서구사회에서도 실감했는지 '두 분야에 걸친 크나큰 이익(great benefit to both)'을 강조하고 나섰다.⁴⁾

이런 취지를 따라 필자는 '한라산을 주제'로 삼고, 상반된 양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려는 시도(試圖)를 보이기도 했다.⁵⁾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예술분야로 확대하려는데 취지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장르'에 그치지 않고, 영화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

(1987), p.xi.

4) 앞 책, p.xi.

5) 오홍석, 「한라산」, 『문학지리: 한국인의 심상공간』, 대표집필자 김내준, 문명(2005), pp.346-362.

한 소재를 '장소의 특성'과 연계하여 다루는 동시에, 관련분야에 걸쳐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하는 후학들에게, 시사점과 방향을 안기려고 이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II. 전근대의 문학적 표현

제주도의 한가운데에 한라산이 솟아 있다. 1950m의 높이라 하더라도, 개국신화와 연계된 백두산에 비하면, 결코 높은 편이 못된다. 국토분단은 역사적 비극으로 평가되지만, 한라산을 남한 최고봉의 위치로 올려놓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길거리에 나붙는 '북으로 백두, 남으로 한라'라는 슬로건도 국토분단을 전제한 것이다. 예전의 선비들은 이를 갈파했음인지, 한라산을 은하수의 높이에 비유해왔다. 그래서 '운한나인(雲漢擎引)의 표현'을 사용했고, 이런 의미가 압축되어 한라산의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은하수를 끌어 당길 만큼, 높은 위치임을 알리고 있다. '하늘에 가깝다'는 뜻으로, 천산(天山)의 이름과 같은 맥락이지만, 모두가 과장되고 허구적 표현일 뿐이다. 이와는 반대로 한라산의 '웅장한 산세'를 눈에 비친 실상을 따라, 실제보다 과소하게 평가한 경우도 있다. '푸르고 푸른 한 점처럼, 넓은 물결 아득한 사이에 있다'고 권 근(權 近)이 시에서 읊은 것이 한 예이다.⁶⁾ '푸르고 푸른 한 점'이란 표현에는 거리가 아득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솟아오른 육지의 모양새까지 담아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넓은 물결 사이'란 표현에도, 제주도가 바다 위에 솟아오른 외로운 섬이란 사실을 알리고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망망대해에서 솟

6) 민족문화추진회, 『신중동국여지승람』, V권(1972), p.98.

아오른 육지는 '항해상의 지표'로 활용되었기에, 항해시대를 통하여 제주도를 '쿠엘파트(Quelpart)로 통용' 하기도 했다. 따라서 '코리아라는 국명' 다음으로, 서구사회에 알려진 국지지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⁷⁾ 제주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서구인의 항해선단은 남쪽에서 올라올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제주도가 항해인들에게 바다의 문턱(sea gate)으로 기능했고, 높이 솟은 한라산으로 하여금 미지(未知)의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들에게, 항로를 알리는 표지판으로 역할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남서해안에서 하멜이 이끄는 선박이 난파(1653년)되고, 이후 이곳을 항해한 벨케르가 한라산을 '오크랜드(Auckland)로 표기'한 사실로서 입증되고 있다. 전자는 난파지점에서 인접한 가파도와 발음상의 혼선에서 비롯되고, 이와 같은 내력에 따라 오늘의 산방산 밑에는 '하멜표류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후자는 선장의 출신지인 영국과 닮은 산세, 무성한 삼림(thick forest)에서 연유되고 있다. 따라서 차귀도-비양도에 이르는 북서해안을 '에덴동산으로 표현' 하고, 제주도 전체를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에 비유하여, 서구사회에 알려진 것도 이 때부터이다.⁸⁾

목포-제주를 연결하는 오늘의 해상루트에서 바라보면, 진도를 벗어 나면서 120km전방에, 한라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의 시 구절처럼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형태'로, 바다에 솟아올라 항해지표가 되는 점에서 예전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렇지만, 남한 최고봉의 웅장한 자태로 믿기에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뾰족한 산세에 익숙해은 사람들의 눈일 경우, 거북이 등처럼 완만한 한라산이 결코 높게 보

7) 오홍석, 「전근대 우리 국토에 대한 서구인의 지리적 인식」, 지리·환경교육, 5-1 (1998), p.92.

8) H. B. Hulbert, 「The Land of Quelpart」,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Bulletin, vol. 37(1905), p.23.

이지 않으며, 착시(錯視)현상을 일으키기에 알맞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모양새는 동서방향으로 길쭉하게 뻗은 타원형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라산의 높이 또한 이등변삼각형의 경우처럼, 동서의 장축(長軸)을 따라 안배될 것은 당연하다. 저변이 짧은 직삼각형과 대조적으로, 실제고도가 낮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드러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같은 높이라도 남북의 좁은 공간에서 경사가 급하고, 동서의 긴 공간에서 완만해짐으로써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라산 사면이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 남북사면을 따라 급경사면과 함께, 수직상태의 절벽을 따라 폭포가 형성된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한라산의 높이는 해안에서 시작하여, 끊임없이 고도를 높여 가는 관계로, 완만한 산세를 유지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등고자비(登高自卑)로 표현하듯, 정점을 향해서 끝없이 올라가는 인생행로에서 '단계와 순서'가 있음을 알리는 암시의 현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한라산의 산세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이후 '동람'으로 요약)이 두부악(頭無岳)으로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⁹⁾

이른바 '머리가 없는 오름'의 형상을 담아낸 데 따른 것이다. 꼭대기에 예리한 봉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한국의 일반적 산세라면, 한라산의 경우 그렇지 않는 '민둥산의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예리한 봉우리는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이 당연하다. 종상(鐘狀)을 이루는 산방산에 관심이 모아진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동람에 쓰기를 '산방산은 한라산의 한 봉우리가 쓰러져 이곳에 서있는 것'이라고 했다.¹⁰⁾ 이것은 실제상황이 아니고 상상의 세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함으로, 문학적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도 동굴 속에 자리한 암자

9) 민족문화추진회, 『신증동국여지승람』, V권(1972), p.98.

10) 앞 책, p.129.

가 신비를 더했기에, 예전부터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로 각광을 받기도 했다. 김자상(金自詳)이 쓴 기문에 '굴속의 암자는 돌기와의 저절로 덮어져 비가 새지 않고, 돌 자리가 저절로 깔리어 들불로 태우지 못하며, 돌 벽이 저절로 서있어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들우물이 저절로 솟아나 요수(遼水)를 더럽히지 못한다'고 했다.¹¹⁾ 동굴이 세찬 바람을 막아주고, 비가 새지 않는 암자로 기능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암자가 들어선 동굴은 과학적으로 해석할 때, 한 날 해식동(海蝕洞)에 불과함으로, 해수면의 높이를 따라 분포하기 마련이다. 오늘의 상황처럼, 동굴이 산중턱에 높게 자리한 것도 용기에 의한 것이며,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하강했음을 의미한다. 해수면은 줄지도 않고, 불어나지도 않은 그대로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을 진데, 잠겼던 지층이 해수면위로 올라와 '상당한 고도'에 해식애(海蝕崖)가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이 자체가 신비한 요소를 갖춘 관계로, 산방산과 굴사는 관광의 명소(view place)로 떠오를 것은 당연하다.

서귀포의 앞 바다에도 해식애는 발달되고 있다. 물결은 수직상태의 해식애를 향해서 밀려드는 까닭에, 항시 '물에 젖는 서귀포'의 이미지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서귀포 칠십리'로 표현하듯, 대중가요의 가사를 낳은 무대로 알려진 배경이다. 끊임없는 파도가 수많은 해식동을 만들어 내었지만, 산방산과 다른 점은 해수면을 따라 낮은 고도에 자리한 사실이다. 그만큼 용기비율에서 산방산의 경우보다 낮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수면에 가까운 무수한 동굴은 테평양 진쟁을 기해서, 전략적 이용을 획책하기도 했다.

대안(對岸)에 위치한 범섬에도 해식동은 발달했기에, 해식동이 집중된 전형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간과해서 안될 점은 해식동을 '호랑이의

11) 앞 책, p.129.

아가리'에 비유하고, 호구(虎口)로 표현했음으로 위험한 상황과 일맥상 통하고 있다. 바둑을 두는 데도 호구는 있음으로, 위험한 형국에서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간과해서 안될 집은 이와 같은 '호구가 확인한 곳'이라는 의미로서 범섬의 이름을 탄생케 했고 '호도(虎島)의 한자'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의 풍수'란 책에서 쓰기를 '호구는 음기가 넘치는 여자의 심벌임으로, 남정네가 이 방향으로 집을 짓고 살 경우, 요사(夭死)하게 됨으로 과부가 많은 곳이 된다'라고 했다.¹²⁾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형국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지만, 남성의 희생이 많은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반면에 여성의 장수와 함께, 전설 속의 '설문대 활망'처럼, 거한 제주여인을 등장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한편 예리한 봉우리는 완만한 산지에 익숙한 제주도 주민에게 동경심과 함께 신비의 존재로 다가가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염원을 담으면서 '자연의존의 사상'을 배양하기도 했다. 삶의 터전에는 지역을 상징하는 주산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내포하는 기상(氣像)을 닮아, 인재배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제주의 자연은 한라산과 태평양으로 이어졌기에 '기산심해(氣山心海)의 표현'처럼, 산지의 기상과 함께 바다같이 넓은 도량을, 동시에 취합(聚合)할 수 있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 거기에다 산과 섬(특히 숲 섬)에는 바위가 예리하게 솟아올랐음으로, 이것이 문필봉(文筆峰)이며 문사배출을 알리는 중표이다.¹³⁾ 그렇다하더라도, 암벽높이에 따라 걸출한 인재배출도 비례한다고 믿는 이상, 작은 봉우리로서 '전국에 명성'을 알리는 인물을 기대하기에는 미흡함이 따른다.

12) 朝鮮總督府, 『朝鮮의 風水』(1931), p.760.

13) 앞 책, p.761.

III. 화산활동과 고유한 자연경관

한라산은 백두산과 함께, 한국에서 흔치 않은 화산이다. 신생대 제3기부터 화산활동을 전개했고, 조면암-안산암-현무암을 차례로 분출했다.¹⁴⁾ 분출거점이 화구호에 있음을 감안할 때, 꼭대기에 자리한 백록담(白鹿潭)이 중심을 이루고, 화구의 형태는 '폭발의 흔적'으로 남는다. 이와 같은 실제상황은 다음과 같이 '동람에 적힌 글귀'로서 이해할 수 있다. '산꼭대기에 큰 못이 있는데, 사람이 떠들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든다. 오월에도 눈이 있고, 털옷을 입어야만 견딜 수 있다'고.¹⁵⁾

산꼭대기에 흔한 봉우리와 달리, 큰 못이 조성된 자체만으로도, 신비한 경치인 것이 확실하다. 여기에다 '사람이 떠들 경우,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구름과 안개가 일어나는 기상변화'와 연계했으므로, 접근하기 어려운 신성한 자연영역으로 여길 것은 당연하다. 봉우리를 대신하여 '물이 고인 화구호'이고, 평지와 다른 기상변화와 관련된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과학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자연은 경외심(敬畏心)과 함께 '흰 사슴을 거느린 신선'의 삶터로 격상되었다.

더욱이 초여름에도 '녹지 않은 하얀 눈'은 따스한 평지에서 바라볼 경우, 신비한 현상이며 색상에서 닳은 흰 사슴까지 떠올리게 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경치로 지목을 받는 '백록담의 흰 눈'이다. 예전부터 제주도에 '열 개의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녹담만설(鹿潭晩雪)로 표현'되는 백록담의 눈이다. 기후의 수직변화에 따른 진설에 불과하지만, 과학적 이해가 모자랐던 시대일수록, 잔설(殘雪)은 신비로운

14) 강석오, 『한국지리』, 새글사(1971), p.257.

15)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188.

현상으로 다가올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난대기후가 탁월한 제주도의 상황에서, 산꼭대기에 국한하여 초여름에 이르도록, 흰눈이 남아있는 자체가 시가유 자극하는 '신비한 분기리'의 가치를 안겨주었다.

그러기에 오월의 잔설은 '녹색초원의 하얀 반점'으로 비쳐졌고, 안식(眼識)작용에 의해서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으면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름난 경관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혜일(慧日)의 시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백록담에 고인 물을 찬양하는 글귀로 드러났다. '한라산의 높기가 몇 길이던가. 정상에는 신비한 못이 있고, 나누어진 물이 북으로 흘러나와 조공천이 되었으며, 달린 폭포가 물방울을 뿜어내어 둥근 구슬을 달아낸다. 놀란 여울이 수많은 돌에 부딪혀 격동하다가, 간혹 향아리와 동이같이 파이기도 했다'라고¹⁶⁾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백록담에서 발원하고, 유로를 따라 물방울을 뿜어내는 폭포와 함께, 향아리를 닮은 '포트 홀(pothole)의 형태'로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간과해서 안될 점은 하천의 발원지를 백록담과 연계하고, 물방울을 진주에 비유함으로써, 허구에 찬 상상의 세계를 드러낸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흰 사슴과 함께 신선'이 동반하는 것도, 연장선상에서 출연한 주인공에 불과하다. 화산암은 분출시기가 빠를수록 점성(粘性)이 강하고, 늦을수록 점성이 약하다.

마지막에 분출한 것이 현무암이고, 섬의 90%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덮고 있으므로, 표면을 활동무대로 삼는 인간에게 쉽게 접촉하게 된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것은 제주도를 전형적 '현무암지대로 표현'한 근거가 되었고, 한라산 정상에서 해안에 이르는 구간에 걸쳐, 2-3도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는 곳으로 규정해 온 배경이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동

16) 앞 책, p.112.

문감(東文鑑)에는 '제주의 땅은 돌이 많고 건조하여 본래 논은 없으며, 오직 보리-콩-조가 생산된다'고 했다.¹⁷⁾ 생산기반이 빈약한 생활환경을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현무암은 검은 빛을 띄는 데다, 투수성이 강한 성질을 갖는 까닭에 원초적 상태에서, 자갈밭과 함께 밭농사 지역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수리(水利)를 전제하는 것이 논밭이고, 논농사가 주축을 이루었던 전근대경제체제에서, 밭농사를 주로 하는 제주도가 곤궁을 면치 못하게 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지역특색은 토지이용과 농업에 그치지 않고, 경지의 소유경계를 위해서 돌담을 쌓는 데로 연계되기도 했다. 돌-바람-여자가 많은 삼다(三多)의 환경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잦은 사회적 혼란이 돌담을 등장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다. '예전부터 밭에는 경계가 없었는데,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날마다 차츰 차츰 먹어 들어감으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다. 김 구(金 丘)가 판관이 되고 부임했을 때, 돌을 모아 담을 쌓고 경계를 만들게 함으로써, 편하게 되었다'¹⁸⁾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을 '취석축장(聚石築牆)으로 표현' 하지만, 주변에 돌이 풍족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 이와 같이 토지경계를 확정하는 방법도, 공동시설로서 변화의 국면을 맞으면서, 해안의 장성(長城)과 내륙산간의 장성으로 분화되기도 했다.

전자가 해안으로 침범하는 외적방어에 기능한 것이라면, 후자는 산지의 방목장에서 들어오는 가축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되었던 소재는 돌이며, 표면에 드러나는 현무암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서귀포 일대처럼 암석이 다를 경우, 소재활용도

17) 앞 책, p.97.

18) 앞 책, p.97.

달라질 가능성을 안게 되었다. 점성이 강한 조면암-안산암이 해안에 주로 노출되고 '해안절벽(sea cliff)의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평상시에 흐르는 물줄기가 어우러져 폭포를 형성했으므로, 천지-정방-천계 등 수많은 폭포가 집중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제주도에서 흔하지 않은 눈발이 등장한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며 '대답(大沓)으로 표현'되는 눈발의 등장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답은 '한 논'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한발의 의미'를 수용하여 대전(大田)으로 통용해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눈발의 분포범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둘은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불입문자(不立文字)의 표현'처럼, 문자에 의한 표현의 불완전성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실제상황과 거리가 있음으로 허구적 표현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

어쨌든, 화산활동은 지질시대에 그치지 않고 역사시대에도 진행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입증되고 있다. '고려목종 5년 6월에 산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 나왔는데, 네 구멍이 뚫리어 붉은 물이 솟아나고, 닷새만에 그치면서 모두 엉키어 와석(瓦石)이 되었다. 10년에는 서산이 바다 가운데서 솟아 나왔다. 전공지를 보내어 살피도록 했는데, 산이 처음 나올 때에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고, 지동(地動)이 우레 소리 같아 무릇 일 주야를 계속했다'라는 현지의 상황과 함께 주민으로부터의 청취기록¹⁹⁾을 남기기도 했다.

이들 화산활동이 일어난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처럼 '서산으로 지적'했으므로, 오늘날 안덕면 관내의 군산으로 지목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구체적 지명이 밝혀지지 않았

19) 앞 책, p.113.

지만, 오늘날 한림읍 건너에 위치한 비양도(飛揚島)로 추정하고 있다. 오름으로 드러난 현장의 화산모습이며, 생생한 화구호와 함께 원형이 담긴 분출물에서, 분출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화산지역임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지명 또한 '수면위로 날아오른 섬'이란 의미를 담은 데서, 화산활동과 연계될 소지를 안는다.

특히 항해시대를 통해서, 이곳의 자연경관은 서구인에게 신선한 모습으로 비쳐지기도 했고, 정감을 느끼는 곳으로 서구사회에 일찍 알려지기도 했음으로, 오늘날 촬영장소로 유명해진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다만 전접부(前接部)가 생략된 불완전한 상태로 '양도(Yangdo)의 이름'을 붙였음으로, 현지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지식정보의 탓이다.

IV. 변방의 성격과 엇갈린 회비

정이오(鄭以吾)가 쓴 글에서 '탐라를 본토에서 바라볼 경우, 큰 바다 아득하고 먼 가운데 따로 한 구역이 되어, 부속국가와 같다'고 했다.²⁰⁾ 그 만큼 한민족의 중심적 활동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marginal land)의 성격'을 안은 채 별개의 국가로 출발했다. 오늘날 '독도의 중요성'에서 시사하듯, 제주도라는 변방이 있었기에 남해로 주권을 확대하는 근거가 되었고, 태평양쪽으로 진출하기에 알맞은 '교두보(bridge)로 역할'을 하게 되었다. 탐라국을 주도한 것은 '고량부(高梁夫)의 세 성씨'이지만, 신라와의 접촉을 시작으로 바다 건너의 한반도와 통합과 교류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한반도의 영향을 받는 부속도서로 전락했고, 오늘날 다시 '행정

20) 앞 책, p.97.

자치의 섬'으로 변화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제행무상(諸行無常)의 표현'처럼, 세상에서 변치 않는 실체는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제주-한반도간의 교류거점도 '변화의 국면'을 맞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탐진-이진-목포-완도로, 변화하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최초의 교류거점으로 탐진(耽津)이 떠올랐음을 고려할 때, 이 이름 또한 '탐라로 건너가는 나무'에서 유래한 것이 확실하다.²¹⁾

이를 증명하듯 오늘의 강진 주변에 화석화된 이름으로 탐진강이 남아 있다. 이후 배 나무(이진)로 연락거점이 옮겨간 사실이 판명되고 있다.²²⁾ 신라시대의 통치거점은 경주였으며, 나중에 동경(東京)으로 표현한 것처럼, 한반도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편재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말단지역은 통치거점으로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연결거점마저 왕도가 자리잡은 곳으로 치우칠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주와의 연락거점도, 남해안 가운데서 동쪽으로 치우친 인상이 짙다.

고려-조선에 이르면서, 통치거점이 황해사면 하천유역으로 이동됨으로써, 말단의 연결거점도 왕도(王都)의 입지동향에 맞추어갈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진-어랑으로, 근대화 이후에는 목포-완도로 연락거점이 옮겨감으로써, 남해안에서도 '거점의 서진(西進)이동'은 현저해졌다. 어떻든 물자와 인간을 이동하는 교통노선에는 해로와 육로의 구분을 두지 않고 '시발점과 종착점(origin and destination)'이 있기 마련이다. 한반도를 중심에 둘 경우, 조선시대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이진(梨津)이고, 후자에 해당하는 조천(朝天)이다.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여건에서, 여객과 화물운송은 해상루트(sea route)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조선조에 들어와 루트의 거점으로, 조

21) 이병도, 한국고대사화와 그 문화, 서문사(1973), p.293.

22) 吳道淑, 『上京海程記』.

천이 떠오르게 되었다.²³⁾ 그래서 조천 포구에 세워진 연북정(戀北亭)은 '당시의 애환'을 담아낸 역사의 현장이 되어왔다. 중앙무대에서 군주독재정치가 이루어지던 시절, 유배에서 풀려나는 기쁜 소식과 희망을, 북쪽의 왕실로부터 배를 통해서 전해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쪽을 향한 연민'은 오매불망(寤寐不忘)으로 이어졌기에, 현판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기도 했다.

바다 밖의 기쁜 소식은 교통장비로서만 전달이 가능하고, 제주도에서 이용하는 선박의 경우,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帆船)에 불과한 까닭에, 풍속(風速)이 관건으로 떠오를 것은 당연하다. '바람이 느리면 4-5시간, 빠른 경우 3-4시간이 소요된다.'²⁴⁾고 했다. 그러나 시-종점간에 지향점이 다른 관계로, 바람이 분다하더라도 풍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 예로서 제주로 들어갈 때 '동풍을 만나면 기쁘고, 북풍을 만나면 더 기쁘며, 남풍을 만나면 파도가 세어 출범을 기피한다'고 했다.²⁵⁾ 한반도를 향한 출범(出帆)의 경우, 앞서의 경우와 반대일 것이 확실하다.

이와 같은 항해의 어려움과 함께, 한반도에서 떨어진 격리(隔離)현상은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유배의 섬'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당시 법률에서 유배는 정치적으로 중죄를 범한 자에게 적용되었지만, 사형까지는 과하고 먼 곳으로 보냄으로써, 종신에 걸쳐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의 성격을 안고 있었다. 그래서 외로운 섬에 묶게 하는 '절도안치(絶島安置)의 방법'이 동원되고, 멀고 접근이 어려운 제주도가 안성맞춤의 장소로 떠올랐다.

김정희는 근대 사회에서 이곳으로 유배된 대표적 인물이고, 현지에 당

23) 이형상, 『담라순력도: 번역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 p.61.

24) 김정호, 『대동지지: 영인본』, 한양대학교학연구원(1976), p.546.

25) 앞 책, p.553.

도하여 지역에 동화하며 지식과 교양을 고양함으로써, 제주도 나름의 향당(鄕堂)문화권을 주도한 사람이다.²⁶⁾ 조선조의 선비는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표현' 하듯,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모두 닦은 다음, 남을 다스리는 절차를 밟은 점에서, 오늘의 정치인과 다르다. 이것은 사대부가 학문적 소양으로 나라를 다스렸음을 의미하는 까닭에, 학자가 곧 정치인이라는 '겸전(兼全)의 의미'와도 맞먹는다.

그들이 유배되거나 정계를 은퇴할 경우, 정치적 측면의 기능상실에 의해서, 학자적 측면만이 부각될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치노선이 다른 세력에 밀려나 유배될 경우, 학자에 전념하는 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정희도 유배지인 제주도에서, 교화활동을 통해 많은 지적유산을 남기기도 했다. 역사적 인물로 인정할 정도의 석학(碩學)과 두뇌가 중앙에 몰려든 상황에서, 벽지인 제주도에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인재들로 하여금 '유배의 현장'에서 만나게 된 아이러니를 낳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전후사정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귀양살이하는 집에 머무니, 멀고 가까운 데로부터 배우러오는 사람들이, 책을 짊어지고 장날처럼 몰려들었다. 겨우 몇 달 동안에 인문(人文)이 크게 개발되고, 문채(文彩)에서 서울 풍이 드러나게 되었다. 곧 탐라의 거친 풍속을 깨우친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²⁷⁾ 이것은 평소에 대할 수 없었던 '국가적 인재'로부터, 학문을 연마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삼아, 사람들이 모여든 인산인해(人山人海)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교화의 결과는 '인문대개(人文大開)로 표현' 하듯, 크게 열리고 깨우침으로 이어졌다. 또한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한 '서예의 대가'이기에, 서법계승 또한 유배지인 대정 고을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오늘날 대정

26) 양진건,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와 교학사상」, 제주도연구, 제9집(1992), p.189.

27) 「완당선생전집」, 권1, 완당김공소전.

에 추사기념관이 세워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으로 '변방의 성격'은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이 되기도 했다. 고려조에 김통정이 삼별초를 이끌고 제주도에 웅거한 것이나, 몽고의 침입과 병행된 목장조성은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4·3사건으로 알려진 '현대사의 비극'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삼별초의 난'을 진압할 때에 몽고가 관여하고, 그 대가로서 '탐라국을 복원' 하는 한편, 고려통치로부터 분리하여 직할지로 지배한 것도 한 예이다.²⁸⁾ 이것이 제주도로 하여금 몽고풍을 수용하게 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연례적으로 들판에 불을 놓는 풍습과 함께, 한라산 중턱에 목장을 조성하고, 방목하는 '제주의 준마(駿馬)'가 이름을 알린 것도 이 때부터이다.

이흥문(李興文)은 시에서 '만 필의 준마는 한가하게 들에 놓였고, 굴과 유지는 교묘하게 가을을 단장한다'라고 읊었다.²⁹⁾ 사육하는 말의 규모와 함께 방목방법을 알리며, 굴 재배의 역사가 오래된 것을 입증하는 글귀이다. 교통과 군사상의 목적으로 말수요가 많았던 조선시대에는 '감목관(監牧官)의 벼슬'을 두면서까지, 말을 사육하는데 국가가 관여하기도 했다. 그 결과 목장은 열 개의 장소로 늘었고, 이곳에서 사육되는 말은 1만2천여 마리로 늘었으며, 목축업에 종사하는 목자(牧子)도 1,386명에 달했다.³⁰⁾

오늘날 한라산 중턱에 광활한 풀밭과 돌담이 등장하는 것도, 과거의 사실을 묵시적으로 알리는 흔적이며, 마구(馬具)와 말의 품종에도 '몽고의 요소'가 담겨진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28)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2003), p.161.

29)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p.119.

30) 남도영, p.161.

V. 영화촬영장소의 지리적 성격

신비한 자연은 눈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볼거리(visual sigh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인간 측면에서, 직접과 간접의 방법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일 것은 당연하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관광이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 문학과 예술이다. 제주도의 관광대상은 아름답고 '신비한 자연'에 편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관광객의 방문지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는데, 서귀포의 천지연폭포가 단연 으뜸의 자리에 놓여 있다.³¹⁾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가 완만한 노년기 지형이 탁월한 한반도의 상황에서, 신비한 자연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찍 피는 벚꽃,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태장어로 하여금, 자연의 신비를 더하는 보완적 요소가 되어왔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신비한 요소는 시청자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았고, 상업성을 띤 방송국으로 하여금 TV의 촬영장소로 선정하게 되었다. 얼마 전 S방송사가 방영하는 '봄날이란 주제'의 드라마도, 역사시대에 분출한 것으로 알려진 '한림의 비양도'를 주된 촬영소로 삼고 있다.

광활한 미국 서부의 평원에서 '버지니아(virginia)의 용어'가 등장될 만큼, 제주도는 화산지형에서 원형을 유지하는 처녀지와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에는, 하얀 패각(貝殼)의 모래와 더불어, 갈대가 무성한 해안풍경으로 하여금, 시청자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인문현상의 측면에서도, 보건소를 통해서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퇴역의사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으로, 세속을 초월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자연과 인간에

31) 오정준,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제주관광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9-3(2004), pp.391-408.

걸쳐 '양면(兩面)적 아름다움'이 겹쳐있는 모습이다.

히포크라테스의 거룩한 정신을 구현하는 시원(始原)적 의미와 함께, 이색적 자연으로 하여금 먼지에 찌든 시청자들에게, 청량한 메시지를 동반하며 동경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한편 '올인의 촬영배경'이 되었던 성산포도, 화산지형의 공통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성산(城山)의 이름'에서 뉘앙스를 풍기듯, 성처럼 솟아오른 절벽이 탁월한 형태에서 다를 뿐이다. 동랍에 쓰기할 '큰 바다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 두 리 좁되는데, 형체가 개미허리이고 같으며 식맥(食脈)이 같은 산 병풍같이 둘러있다. 꼭대기는 평평하고 넓어서 2백여 보나 되는데, 삼촌의 말을 이루어 성안에 사는 것 같다'³²⁾라고 했다.

바다에서 직접 솟아오른 화산이며 '입이 큰 대구(大口)'처럼, 땅의 대부분은 화구로 되고 있다. 이것은 폭열구(爆裂口)로 표현하듯, 지형 전체가 수직으로 솟아오른 화구임을 입증하고 있다. 개미허리와 같은 형국은 제주 본토와 연결된 '모래밭의 고리'를 의미한다. 화구가 본래 제주 본토로부터 분리되고 있던 것을, 해류에 의해서 넥타이처럼 엮어 맨 데서 '본토와 연계된 육계도(tied-island)'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 혼한 암석해안과 달리, 이질적 풍경을 담은 사질해안의 진면모를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바다에서 솟아오른 병풍과 같은 벼랑으로 하여금, 장엄하고 신비한 풍경을 이루면서, 수직과 수평적 형태가 교차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다,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맞이의 일출봉으로 기능하는 한편, 배의 진로를 안내하는 등대까지 놓여있다. 이것이 카시노에 종사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극중의 젊은이'들에게, 휴식처로서 안성맞춤

32) 민족문화추진회, p.124.

의 장소가 되었다. 한편, '섬지코지로 통용'되는 신양리의 해안도, 보조적 촬영장소로 활용했지만 '육계도의 특성'을 갖춘 점에서, 일출봉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조그마한 포만(浦灣)을 갖춘 '아름다운 경치(beautiful landscape)'가 가치를 더해주며, 봉수대가 긴급상황을 알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다가올 뿐이다. '이재수 난'을 주제로 삼은 영화촬영장소도 제주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난은 제주도에 실재했던 역사적 사건임으로, 사건현장에서 촬영은 의미를 한층 높이고 있다. 홍순옥은 '속칭음사를 주된 자료'로 활용하여, 이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영남의 활빈당과 호남의 교란(敎亂)으로, 서울에서 관군이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을 미리 갈파하고, 주민들이 우상화하는 신목(神木)과 사당을 파괴해온 교인들의 작태에, 불만을 품고 직접민란을 일으켰다.

당시 서진(西陳)대장의 위치에서 군졸을 이끌었던 이재수는 21세의 젊은 나이였다. 온갖 치장으로 고향인 대정으로 금의환향하는 모습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것 같았다'³³⁾고 했지만, 뒷날 '적중한 예언'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실제 장면이 환상적이었음으로, 허구적 표현을 가미할 경우,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될 가능성을 이미 잠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實像)에 감동했음인지,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영화의 촬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영화촬영은 사건의 발생현장과는 관계없이, 한라산 동쪽사면의 구좌읍 내륙을 주무대로 삼았다.

이곳에는 관광지로 유명한 '산굼부리 오름'을 포함하여, 수많은 기생화산이 집결되어 '화산분포의 전형'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다. 360여 개에

33) 홍순옥, 「천주교 제주선교종의 친구갈등, 제주도연구」, 제3집(1986), p.355.

달하는 측(側)화산이 제주도의 상징이라면, 압축된 현장의 면모를 드러내는 곳이기도 하다. 이를 세분할 경우 현무암추(basalt cone)와 분석구(cinder cone)로 양분되고 있다. 전자가 추상(錘狀)에 가까운 군산에서 예를 찾는다면, 후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름이다.³⁴⁾ 이들 화산은 종류에 관계가 없이 현무암으로 구성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분석구(噴石丘)를 중심으로 주변에, 현무암보다 나중에 분출한 화산재의 적재장소가 되는 관계로 '땅의 역사'를 알리는 현장으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륙도가 클 뿐 아니라, 오름이 집중되어 솟고 내려앉은 '파상(波狀)의 자연경관'이 드러나는 점이다. 이것은 낙지매화(落地梅花)와 '유사한 형국'으로 비쳐지면서, 시각적으로 신비한 경관으로 떠오르는 한편, 관군(官軍)의 반격이 용이하지 않은 '가상적 방어기지'로도 알맞은 장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이색(異色)적 풍경일 뿐 아니라, 군사적 측면의 '요새에 적합한 땅'의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을 통해서 호기심을 끌 것으로 판단하고, 내란을 다루는 '영화의 촬영장소'로 선택했던 것이다.

VI. 문학-예술적 표현과 장소의 특성

문학작품에도 제주도의 자연 및 사회여건과 함께, 도민의 삶은 묘사되고 있다. 이를 묘사한 작기에는 제주와 관련이 없는 부류와, 관련이 있는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황순원의 '비바리'와 함께, 오영수의 '실 거리 꽃'을 들 수 있다.³⁵⁾ 이들은 일시적 여행이나 제주도로

34) 김상호, 「제주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제1호(1963), p.11.

의 피난을 계기로, 짧은 체험과 청취의 결과를 통해서 작품을 썼음으로, 피상적이면서도 실제상황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 흠으로 남는다.

분야에서 다르지만 이중섭도 한국동란 때에, 서귀포로 피난해오면서 '화제의 작품'을 남겼음으로 같은 맥락이다. 방법에서 다를 뿐, 화폭을 이용해서 '신비로운 자연'을 담아내려는 욕구에서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그는 가난한 화가인데다 피난살이를 통해서, 절실한 문제가 호구지책(糊口之策)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서귀중학교에서 연극경연에 출품할 무대 미술을 담당했고, 지방유지들에게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보답의 의미'로서, 그림을 선물하기도 했다. 세심여경(洗心如鏡)의 표현처럼, 피난길에서 명예를 접은 채 순수한 작가의 길로서, 마음을 닦아온 결과이다.

그림의 소재가 풀을 뜯는 황소-바다와 어린이-한라산의 원경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서귀포 앞 바다를 내려다보는 소남 머리에서, 들과 바다에서 떠오른 새로운 자연이며 풍물이지만, 모두가 새로운 접촉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내부사정을 속속들이 알고있는 경우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카메라에 담은 피사체(被寫體)처럼, 우연한 기회에 투영된 것으로 느껴지는 소재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풍물의 존재가 좁게는 서귀포, 넓게는 제주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 소재를 취급했다하더라도, 화가고유의 필법으로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미술사의 한 단면(profile)을 이루기도 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역성격(regional characteristics)과 무관하지 않은 작품임으로, 관계된 행정기관에서는 기념관을 짓고, 거리이름에 이중섭을 부각하면서 '작가의 명성'을 관광사업에 활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³⁵⁾

이에 반하여 제주도에서 출생하고 제주도에서 성장한 작가의 경우, 주

35) 김영화, 「문학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제주도연구, 제9집(1992), p.3.

36) 오홍석, 「내가 만난 세상」, 도서출판 줌(2005), pp.120-127.

관과 감정에 치우쳐 객관성을 흔들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수많은 작가의 배출은 제주도를 무대로 삼고, 심화된 수준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되고 있지만 무대의 성격 해명과는 별개로, 인간체험(human experience)에 주력한 것이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작품을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여건에 연계할 경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오성찬의 '돌하르방'과, 현기영의 '소드방 놀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 조선시대로 소급하여, 제주도민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서 주력했는데, 기근-질병-왜구와 관련된 사회사정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후자의 경우 기근에 초점을 맞추고, 그 참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했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흐른 것이 흠이다.³⁷⁾

어느 것이나 근대화가 되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변방의 애환을 겪으며 복지(well-being)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다룬 것만은 확실하다. 식민시대의 작품으로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과 김학수의 '흙의 슬픔'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자는 실재했던 구좌면 일대의 투쟁을 형상화한 것임으로, 제주해녀의 작업광경과 함께, 그들의 애환과 삶을 묘사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아직도 제주도에는 해녀가 존재할 만큼, 고유한 지역 성격을 발휘하는 요소임으로, 문학적 소재로 활용하기에 알맞다.

후자는 192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 등지의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는, 제주출신노동이민 1세대의 애환을 그려낸 작품이다. 오늘날 오사카를 중심으로, 제일 교포의 기반을 확립했던 제주출신이 정착과 함께, 고생과 성공으로 이어진 이야기임으로, 이제 전설처럼 들리고 있을 뿐이다. 광복 이후에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과 현길언의 '먼 훗날' 등이 있다. 모두가 4·3사건을 계기로 좌우익의 분열과 대립상황이 적나라하

37) 김영화, pp.4-5.

게 드러난 작품들이다.³⁸⁾

이와 같이 4·3사건은 제주도 지역사회의 붕괴와 함께, 외지인에 의한 탄압시대를 열었고, 한민족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한 분기점을 낳기도 했다. 진압과정에서 낯서른 외지인(서부청년단을 말함)이 들어오고, 이로 인한 도(島)내외에 걸친 출신지역의 갈등은 이념적 대립과 함께, 제주도 민에게 이중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출중한 젊은 여성이 '외지인의 현지처'가 될 정도로, 통혼권역의 확대에 따른 이색문화의 충돌도 일어났다.

현기영의 작품도, 언어와 풍습에서 달라진 가정과 함께, 대립의 구도로 치닫는 사회적 배경을 밑에 깔고 있다. 따라서 좌파(左派) 모험주의 자들과 군경사이에서, 희생된 평범한 제주도민의 삶을 소재로 삼고, 좌우갈등 속의 수난사를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현길언의 작품은 교수가 주인공이 되었음으로, 정신적 갈등과 압박은 지식층에도 예외 없이 다가왔음을 알리고 있다.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된 인간불신풍조에 의해서, 가까운 친척마저 외면하는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주된 줄거리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피신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에게서 쉽게 다가온 '실제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지만, 허구(虛構)이면서도 사실에 가까운 내용으로, 미화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소설은 최문희의 '올리시스의 초상'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 아일랜드가 독립운동을 전개할 당시, 주역으로 활동한 청년(올리시스)들의 의식과도 유사한 내용을 제주와 연계하고 있다. 다만 이 소설은 장르가 제주도에 한정되지 않고, 작가의 활동무대인 서

38) 앞 글, pp.8-12.

올로 양분함으로써, 제주도에 한정해버린 앞서의 소설무대와 다르다. 따라서 항해의 성공을 통한 가족 간의 화합이란 측면에서, 조천-이진(梨津)에 이르는 어려운 '태우의 항로'를 택했기에, 루트-풍향-풍속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³⁹⁾

이와 같은 전제는 지리학도가 소설을 작성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리고 있다. 최문희는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했으며, 지리학자가 발표한 '범선항해시대의 제경(濟京)해로'에 관한 논문을 작품 소재로 활용하기도 했다.⁴⁰⁾ 뿐만 아니라, 최문희는 '서로가 침묵할 때'의 장편소설을 통해서, 각 신문사의 역대공모작품에서 최고액의 상금을 받았고,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기록을 세움으로써 '외부에 지리학을 알린 사람'으로 현대지리학사에 수록되기도 했다.

그 근거가 지리학도만이 가질 수 있는 작품소재와 골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의 주인공이 자연지리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에 다니는 학생이고, 야외로 나가는 답사활동을 통해서 '작가의 노트'를 취급한 것이 차별성으로 다가왔다.⁴¹⁾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작가노트에서 '높은 산지는 낮아지기 위해서 삭(削)평형작용을 벌이고, 평지는 높아지기 위해서 적(積)평형작용을 전개한다. 하식(河蝕)작용의 측면에서, 전자는 아래로 깎아 내리고 후자는 옆으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지형을 통해서, 답사노트는 다음과 같이 '육화(肉化)된 문장'으로 풀어내었다. '서로에게 눈길을 고정시킨 두 사람은 하나의 점 위에 서있다. 점이 선을 만들고, 운명이라는 굵은 획을 긋고 지나간다. 선

39) 최문희, 『율리시스의 초상』, 세계사(1995), pp.1-381.

40) 오홍석, 『범선항해시대의 제주-서울 해로와 주변취락』, 사학논총, 태학사(1984), pp.327-342.

41) 오홍석, 『현대 한국지리학사』, 도서출판 줌(2004), pp.516-518.

이 만들어낸 도형은 아무리 아름답다한들,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⁴²⁾ 이것은 활동무대에 대한 학술적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인생과 인게하면서 '시인이치와 인생역정을 매치'한 것이다. 작가가 문필에 의한 표현에도 힘쓰는 한편, 장소의 성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명하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지리학도만이 해낼 수 있는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쨌든, 작품은 인간의 발자취와 경험을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활동무대가 되었던 장소에 대해서도, 지리적으로 해명하고 인생역정과 결부하며, 정제(精製)된 작품으로 선보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것이 독자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와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서게 되었으므로 '양면에 걸치는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문학-지리가 지향하는 바이고 둘이 별개로 떨어지지 않는 데서, 가능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사실 작가에 의해서 창출되는 감정세계는 비현실적이고, 때로는 리얼리티(reality)가 없는 데서, 과학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거나, 그림의 떡처럼 '화려한 묘사'에만 힘쓰는 경향을 드러낸다. 그렇다하더라도, 문학은 지리학자의 연구자료를 원천으로 삼으며, 그들만의 세계를 경험하는 방법과 시각을 제공하는 까닭에, 지리학과 문학과의 관계를 별개로 보지 않고 있다.⁴³⁾ 한편, 시에서 강조하는 서정적 표현도, 작가의 성장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는 다르지만, 제주-서울에 걸쳐 활동해온 점에서, 김광협 시인도 최 작가와 마찬가지로, 그는 '일파만파(一波萬波)의 시제'를 내걸었고, 그것을 시집의 표제로 삼기도 했다. 작가는 고향을 떠나있으면서도, 성장요람이 되었던 '서귀포의 앞 바다'를 못 잊어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

42) 최문희, 『서로가 침묵할 때』, 민예당(1995), p.10.

43) 이은숙, 『문학지리학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호(1992), p.147.

대해서 꿰뚫고 있었던 환경지각(知覺)과 함께, 소년시절 일상적으로 관찰해온 경험을, 서울 수준의 문학으로 승화하는데 노력하기도 했다. 해안에서 일렁이는 '하나의 파도'가 점차로 커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센 파도가 바다 전체로 확산되며, 수습불능의 상태로 발전하는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바다를 주제로 삼으면서도, 국문학도답게 서정적 표현에 역점을 주었을 뿐, 서귀포 앞 바다에만 드러나는 '고유한 성격'과는 무관한 느낌을 주고 있다. 서귀포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의 남쪽에 자리한 위치인데다, 태평양을 향해서 물줄기로 이어지는 길목임으로, 움직이는 망망대해(茫茫大海)와 항시 접촉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파도치는 서귀포와 함께 '물에 젖은 서귀포'로 표현해온 것도, 이와 같은 해변환경과 관계된다. 그래서 시인의 눈에 파도는 시제(詩題)로 선택되고, 작품으로 발표되었으므로 바다가 펼쳐진 주변 환경과 무관치 않은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다.⁴⁴⁾

VII. 결론

원효대사가 불멸의 진리로 내세운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에는 실상과 허상을 전제하고 있다. 전자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지리학이다. 그러기에 자연분야에 해당하는 땅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활동결과로 누적된 인문현상까지 포괄하며,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자세까지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 토지에 전개된 현상을 '있는 그대로'의 실상으로 파악해야되고, 그것을 근거자료로 삼으며 활용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44) 오홍석,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도서출판 줌(2006), p.414.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지리학은 먼저 상황(situation)를 정확히 관찰하고, 대비(對比)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종합적 관점으로 지역성격을 해명하는 데 우선하고 있다.

그러나 허상(虛像)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문학-예술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표현기법에 역점을 둔 나머지, 자연-인문에 걸치는 경관(landscape)과 함께 인간체험까지 취급하면서도, 허구(虛構)적 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구름을 잡는 이야기에 비유할 수 있음으로, 외형은 화려하게 단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리적 허점과 함께 리얼리티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은 체험무대가 실제로 전개되는 '장소의 성격(characteristics of place)'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자유도시(자유지역이 옳은 표현)로 발족하며, 행정 자치지역으로 승격된 오늘의 제주도에, 많은 시사(示唆)를 안기고 있다. 시사하는 바의 큰 줄거리가 '해당분야의 상호이익'에 있는 만큼, 모든 분야에서 둘이 하나되는 '불이(不二)철학에 근거'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과 보전은 물론이고, 단위지역 안에서 개발로 인한 손실과 이익도, 대립하기 쉬운 이원적 요소이다. 제주도에서 으뜸의 자리에 있는 관광산업도, 신비한 볼거리(visual sight)를 찾는데 방목목적이 있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먼저 제주도의 지역특색 내지 '장소의 성격'을,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일에서 시작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적 과정과 순서를 밟는 것이 알맞다. 따라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절대 가치가 정신적 창작활동에 있음을 감안하여, 문학-예술분야를 제주도가 현재 제도와 외형에서 표방하는 '거창한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계분야는 '타성적 틀'에서 벗어나는 한편 '장소의 특성'을 전

제하며, 정제(精製)된 묘사와 표현으로 격상된 창작활동에 전념하려는 자세전환도 필요하다.

주제어

문학적 표현, 화산섬, 지리적 장소, 인간의 체험, 균형과 조화

참고문헌

- 강석오, 『한국지리』, 새글사(1971).
- 金斗奉, 『濟州島實記:耽羅志補選』, 국립중앙박물관(1935).
- 김상호, 『제주도의 자연지리』, 『지리학』 제1호(1963).
- 김영화, 『문학 속에 비친 제주인의 삶과 환경』, 『제주도연구』 제9집(1992).
- 김정호, 『대동지지: 영인본』, 한양대학교학연구원(1976).
- 남도영, 『제주도목장사』, 한국마사회(2003).
- 민족문화추진회, 『신증 동국여지승람』, V권(1972).
- 양진진, 『추사김정희의 제주유배와 교학사상』, 『제주도연구』 제9집(1992).
- 吳道淑, 『上海海程記』.
- 오정준, 『탈분화의 공간적 반영-제주관광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9-3(2004).
- 오홍석, 『범선항해시대의 제주-서울 해로와 주변취락』, 『사학논총』, 태학사(1984).
- 오홍석, 『전근대 우리국토에 대한 서구인의 지리적 인식』, 『지리·환경교육』 5-1 (1998).
- 오홍석, 『한라산』, 『문학지리: 한국인의 심상공간』, 대표집필자 김태준, 논형(2005).
- 오홍석, 『내가 만난 세상』, 도서출판 줌(2005).
- 오홍석, 『자연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도서출판 줌(2006).
- 오홍석, 『현대한국지리학사』, 도서출판 줌(2004).
- 『완당선생전집』 권1, 완당김공소전.
- 이병도, 『한국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문사(1973).
- 이은숙, 『문학지리학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문화역사지리』 제4호(1992).
- 이형상, 『탐라순역도: 번역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79).
- 朝鮮總督府, 『朝鮮の風水』, (1931).
- 최문희, 『서로가 침묵할 때』, 민예당(1995).
- 최문희, 『율리시스의 초상』, 세계사(1995).
- 홍순옥, 『천주교제주선교증의 친구갈등』, 『제주도연구』 제3집(1986).
- 中村新太郎, 『濟州島火山島雜記』, 地球4-4(1925).

H. B. Hulbert, "The Lands of Quelpart",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Bulletin*,
Vol. 37(1905).

William E. Mallory, *Geography and Literature*, Syracuse University Press(1987).

Abstract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Island and Description in Literature

Oh, Hong-seok*

Jeju is one of the volcanic island. There are located numerous cinder cone and beautiful landscape which are interested to tourist and novelist. They are wanted to reach the objection which are more creative description in Literature. Such creative descriptions are so concerned with the nature of human experience that novelist and poets are needs to studied the geographical place. Because the places are enable the essences in the literature and contributed to numerous readers who accepted felt strongly. Conclusively, the way of benefit for both are harmony and balance between the geography and the literature(including arts).

Key Words

Description in Literature, Volcanic Island, Geographical Place,
Human Experience, Benefit for Both

교신: 오홍석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mail : geooh@reseat.re.kr 전화 : 019-9778-1488)

최초 투고일 2005. 5. 24

최종 접수일 2006. 7. 2

* Senior Research Fellow/Ph.D,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